

## 藏氣法時の 觀點으로 본 治法 研究

김현정·강정수\*

### Study on Medical Treatment by the Zang-qi-fa-shi(藏氣法時)

Hyun-Jung Kim, Jung-Soo Kang

Dept. of Oriental Medical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Keeping in step with four seasons, Spring, summer, autumn, and winter, the heaven and earth(天地) has been born(生), grown(長), covered(化), gained(收), and kept(藏) by interaction of yiyang and yuqi(五氣: 木火土金水). And according to Naiching, human being is born with energy of heaven and earth(天地之氣) and is grown with the law of four seasons(四時之法).

So, we now know that the human's body and nature interact each other. The oriental medical science has been studied the effect that the nature's change influences on human body.

Now, I get some idea that using herb medicine and acupuncture should have hanged following the change of four seasons.

We know that there is a cycle in nature. Every day sun arise and down, and every month moon gets full and new. And every year, four seasons orderly change, from spring to winter. All of this is the law of nature and human body adapts this law. Man always shows the physiological phenomena which changes under the law of nature, especially the turning of the seasons. Therefore, we should use different medical methods in different seasons.

Key words : Zang-qi-fa-shi, yiyang, yuqi, the law of four seasons

### I. 서론

天地는 春夏秋冬의 四時에 따라 陰陽이 消長하고 木火土金水の 五氣가 變갈아 작용하여 生長化收藏을 나타낸다<sup>1)</sup>. 『素問·寶命全形論』에서는 “人以天地氣生 四時之法成<sup>2)</sup>”이라 하여 天地 四時は 人體 生命活動의 유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인체는 자연계와 상응하므로 변화는 직접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인체 내에서도 상응하는 변화가 나타난다<sup>3)</sup>.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자연계의 변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여 三陰三陽의 標本中 開闔樞의 氣化理論, 運氣의 勝復鬱發, 五行의 生剋勝侮 등으로 이를 생리병리에서 설명하였다.

실제로 季節에 따라 유행하는 疾患이 있고 같은 시기에 비슷한 病症의 患者가 많이 발생하는 일이 잦다. 이런 患者들은 四時의 變化에 따른 人體變化를 고려하여 治療하는 것이 더욱 유효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생리학교실

·교신저자 : 강정수 · E-mail : omdkjs@dju.ac.kr

· 채택일 : 2007년 11월 10일

1) 裴秉哲 譯, 今釋黃帝內經素問, 서울, 成輔社, 1999, p. 78.

2) 裴秉哲 譯, 今釋黃帝內經素問, 서울, 成輔社, 1999, p. 281.

3) 崔根祚, 시간에 따른 인체의 생리변화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하다. 또한 다른 疾患일 지라도 계절의 특성에 맞는 藥物이나 穴位를 配伍하여 사용하면 더욱 上昇效果를 볼 수 있다.

한의학의 根幹을 이루는 生理와 病理의 법칙을 살피지 않고 診斷과 治療를 한다는 것은 체가 성글어 곡식이 다 빠져 나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오늘날 환자를 診斷하고 治療함에 있어 病症과 脈 등으로만 臟腑의 虛實을 판단하고 四時의 變化에 따른 人體 臟腑의 虛實變化를 살피는 것은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용약에 있어서도 四時의 변화에 상응하는 처방의 운용이 있어야 한다는데 착안하여 연구하던 중 지견이 있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본 론

### 1. 四時에 따른 天人相應

#### 1) 四時가 人體에 미치는 影響

物候와 病候는 모두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素問·五運行大論』에서는 “지상의 만물과 하늘의 일월·오성의 운동은 근본과 지엽의 관계와 같이 밀접하다. 비록 우주가 멀고 넓다 하더라도 천상을 관찰하면 가히 알 수 있다”고 하였으니 기후·물후·병후는 기후의 변화에 통괄된다<sup>4)</sup>.

고립된 개체가 아닌 人體는 우주 대자연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人體의 장부기화는 자연기화와 통일된 하나의 정체를 이루어 밀접하게 관계된다. 그러므로 辨證시에는 人體뿐만 아니라 반드시 병증의 발생과 자연기화를 서로 연계시키고, 병증에 대해서는 기화를 응용하여 분석·판단하면 정체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다<sup>5)</sup>.

『素問·寶命全形論』에서는 “天覆地載, 萬物悉備, 莫貴於人. 人以天地之氣生, 四時之法成<sup>6)</sup>”이라 하였고, 『醫學入門』에서는 “天地以五行更迭衰旺, 以盛四時, 人之五臟六腑, 亦應之而衰旺<sup>7)</sup>”

이라 하여 사람은 天地의 氣에 의해 生하고, 四時의 運行法則에 따라 형성되며, 四時五行의 衰旺에 사람의 五臟六腑가 應하여 衰旺한다고 하였다. 기후변화는 人體의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킨다<sup>8)</sup>.

일년중 주기적이고 고정적인 四時의 변화에 적응하여 人體의 生理活動의 변화가 일어나 臟腑의 균형상태가 변화되므로, 主氣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병증이 쉽게 나타난다. 즉, 運氣의 太過·不及에 따른 특수한 기후 뿐 아니라 春夏秋冬 四時의 일반 기후 변화 역시 人體에 영향을 미쳐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변화는 개개인의 병증, 체질 등과 맞물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므로 치료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sup>9)</sup>.

#### 2) 旺相休囚死에 따른 臟腑의 虛實

『素問』 「六元正紀大論」에서 “六氣의 작용에 太過와 不及의 차별이 있고, 四時의 氣化에도 성쇠의 차이가 있다. 盛衰의 多少는 春·夏·長夏·秋·冬의 기화와 동화한다.”고 하였다. 『至眞要大論』에서는 “虛證과 實證의 기리를 살피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虛와 盛은 虛實을 말하며 虛實病機의 虛實은 運氣의 盛衰 문제를 고려해야 함을 뜻한다<sup>10)</sup>.

各 臟腑는 五行에 배속되고 또한 각기의 독특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十干에 배속시킬 수 있어 季節의 五行屬性에 따른 生剋 關係로서 臟腑의 旺相休囚死를 따져 볼 수 있다. 各 장부의 배속의 방식은 甲膽乙肝丙小腸 丁心戊胃己脾鄉 庚屬大腸辛屬肺 壬屬膀胱癸腎臟 三焦陽府須歸丙<sup>11)</sup> 包絡從陰丁火旁 陽干宜納陽之腑 臟配陰干理自當<sup>12)</sup>이 된다.

7) 李梴,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 217.

8) 勸依經, 오운육기학 해설, 서울, 법인문화사, 1996, p. 161.

9) 楊力, 中醫運氣學, 서울, 법인문화사, 2000, p. 179.

10) 楊力, 中醫運氣學, 서울, 법인문화사, 2000, p. 151.

11) 三焦는 決瀆之官이므로 壬水에 配屬될 수 있고 命門火를 받아 臟腑에 熱을 加해서 腎水가 凝結되지 아니하고 恒常 溫해서 血의 源泉이 되므로 丙火로 볼 수도 있다.

4) 楊力, 中醫運氣學, 서울, 법인문화사, 2000, p. 34.

5) 楊力, 中醫運氣學, 서울, 법인문화사, 2000, p. 213.

6) 裴秉哲 譯, 今釋黃帝內經素問, 서울, 成輔社, 1999, p. 281.

五行의 休旺은 다음과 같다. “五行體休旺者, 春則木旺火相水休 金囚土死, 夏則火旺土相木休 水囚金死, 六月則土旺金相火休木囚水死, 秋則金旺水相土休火囚木死, 動則水旺木相金休土囚火死<sup>13)</sup>”

干支로도 休旺을 살펴볼 수 가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干支休旺者, 春則甲乙寅卯旺, 丙丁巳午相, 壬癸亥子休, 庚辛申酉囚, 戊己辰戌丑未死. 夏則丙丁巳午旺, 戊己辰戌丑未相, 甲乙寅卯休, 壬癸亥子囚, 庚辛申酉死. 六月則戊己辰戌丑未旺, 庚辛申酉相, 丙丁巳午休, 甲乙寅卯囚, 壬癸亥子死. 秋則庚辛申酉旺, 壬癸亥子相, 戊己辰戌丑未休, 丙丁巳午囚, 甲乙寅卯死. 冬則壬癸亥子旺, 甲乙寅卯相, 庚辛申酉休, 戊己辰戌丑未囚, 丙丁巳午死<sup>14)</sup>”

이를 기준으로 臟腑의 旺相休囚死를 살펴보면 봄에는 肝·膽이 旺, 心·小腸이 相, 腎·膀胱이 休, 肺·大腸이 囚, 脾·胃가 死이다. 여름에는 心·小腸이 旺, 脾·胃가 相, 肝·膽이 休, 腎·膀胱이 囚, 肺·大腸이 死이다. 長夏에는 脾·胃가 旺, 肺·大腸이 相, 心·小腸이 休, 肝·膽이 囚, 腎·膀胱이 死이다. 가을에는 肺·大腸이 旺, 腎·膀胱이 相, 脾·胃가 休, 心·小腸이 囚, 肝·膽이 死이다. 겨울에는 腎·膀胱이 旺, 肝·膽이 相, 肺·大腸이 休, 脾·胃가 囚, 心·小腸이 死한다.

『素問·玉機眞藏論』에서 “黃帝問曰 春脈如弦, 何如而弦? 岐伯對曰 春脈者肝也, 帝曰 善. 夏脈如鉤, 何如而鉤? 岐伯曰 夏脈者心也 帝曰 秋脈如浮, 何如而浮? 岐伯曰 秋脈者肺也, 帝曰 冬脈如營, 何如而營? 岐伯曰 冬脈者腎也, 帝曰 四時之序, 逆從之變異也, 然脾脈獨何主? 岐伯曰 脾脈者土也, 孤藏以灌四傍者也<sup>15)</sup>”라고 하여 봄에는 肝의 弦脈이, 여름에는 心의 鉤脈이, 가을에는 肺의 浮脈이, 겨울에는 腎의 營脈이 平脈이

된다는 四時의 平脈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이는 그 시기에 그 臟腑의 기운이 가장 盛하게 되기 때문이다.

『千金要方·診四時相反脈』에서는 “春三月에는 木旺하여 肝脈이 治하므로 마땅히 먼저 이르고 心脈이 다음이고 肺脈이 다음이고 腎脈이 다음이니, 이는 旺相의 順脈이 된다. 六月土旺이 되면 脾脈이 마땅히 먼저 이르러야 하는데 도리어 이르지 않고 腎脈을 얻으면 이는 腎反脾가 되니 七十일에 죽는다. 무엇을 일러 腎反脾라 하는가. 夏에는 火旺하여 心脈이 마땅히 먼저 이르고 肺脈이 다음이어야 하는데 도리어 腎脈을 얻으니 이를 일러 腎反脾라 한다. 五月·六月에는 丙丁을 忌한다. 脾反肝하면 三十일에 죽는다. 무엇을 일러 脾反肝이라 하는가. 春에는 肝脈이 마땅히 먼저 이르러야 하는데 이르지 않고 脾脈이 먼저 이르면 이를 일러 脾反肝이라 하니 正月·二月에는 甲乙을 忌한다. 腎反肝하면 三歲에 죽는다. 무엇을 일러 腎反肝이라 하는가. 春은 肝脈이 마땅히 먼저 이르러야 하는데 이르지 않고 腎脈이 먼저 이르면 이를 일러 腎反肝이라 하니, 七月·八月에는 庚辛을 忌한다. 腎反心하면 二歲에 죽는다. 무엇을 일러 腎反心이라 하는가. 夏는 心脈이 마땅히 먼저 이르러야 하는데 이르지 않고 腎脈이 먼저 이르면 이를 일러 腎反心이라 하니 六月에 戊己를 忌한다<sup>16)</sup>” 하여 四時에 상응하는 五行의 臟腑의 脈이 제대로 이르지 않으면 이를 反이라 하여 자연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 3) 四時의 旺相休囚死에 따른 五臟의 病變

『素問·藏氣法時論』<sup>17)</sup>에 季節·날짜·時間에 따른

16) 李景榮 等,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p. 607-608.

“春三月 木旺 肝脈治 當先至 心脈次之 肺脈次之 腎脈次之 此爲旺相順脈也, 到六月土旺 脾脈當先至而反不至 及得腎脈 此爲腎反脾也 七十日死. 何謂腎反脾 夏火旺 心脈當先至 肺脈次之 而反得腎脈 是謂腎反脾 期五月六月 忌丙丁. 脾反肝 三十日死. 何謂脾反肝 春肝脈當先至而不至 脾脈先至 是謂脾反肝 期正月二月 忌甲乙. 腎反肝 三歲死. 何謂腎反肝 春肝脈當先至而不至 腎脈先至 是謂腎反肝 期七月八月 忌庚辛. 腎反心 二歲死. 何謂腎反心 夏心脈當先至而反不至 腎脈先至 是謂腎反心, 期六月 忌戊己.”

12)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一中社, 1992, p. 78.

13) 殷南根, 오행의 새로운 이해, 서울, 법인문화사, 2000, p. 181.

14) 殷南根, 오행의 새로운 이해, 서울, 법인문화사, 2000, p. 181.

15) 전국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편찬위원회, 類編黃帝內經, 대전, 주민출판사, 2005, p. 695.

五臟病의 변화상황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肝은 四時로는 “病在肝, 愈於夏, 夏不愈, 甚於秋, 秋不死, 持於冬 起於春, 禁當風”, 날짜로는 “肝病者, 愈在丙丁, 丙丁不愈, 加於庚辛, 庚辛不死, 持於壬癸, 起於甲乙”, 시간으로는 “肝病者, 平旦慧, 下晡甚, 夜半靜.”이라 하였다. 이는 五行의 旺相休囚死를 말하는 것이다.

心은 四時로는 “病在心, 愈在長夏, 長夏不愈, 甚於冬, 冬不死, 持於春, 起於夏, 禁溫食熱衣”, 날짜로는 “心病者, 愈在戊己, 戊己不愈, 加於壬癸, 壬癸不死, 持於甲乙, 起於丙丁”, 시간으로는 “心病者, 日中慧, 夜半甚, 平旦靜.”이라 하였다.

脾는 四時로는 “病在脾, 愈在秋, 秋不愈, 甚於春, 春不死, 持於夏, 起於長夏, 禁溫食飽食, 濕地濡衣”, 날짜로는 “脾病者, 愈在庚辛, 庚辛不愈, 加於甲乙, 甲乙不死, 持於丙丁, 起於戊己”, 시간으로는 “脾病者, 日昃慧, 日出甚, 下晡靜”이라 하였다.

肺는 四時로는 “病在肺, 愈在冬, 冬不愈, 甚於夏, 夏不死, 持於長夏, 起於秋, 禁寒飲食寒衣”, 날짜로는 “肺病者, 愈在壬癸, 壬癸不愈, 加於丙丁, 丙丁不死, 持於戊己, 起於庚辛”, 시간으로는 “肺病者, 下晡慧, 日中甚, 夜半靜”이라 하였다.

腎은 四時로는 “病在腎, 愈在春, 春不愈, 甚於長夏, 長夏不死, 持於秋, 起於冬”, 날짜로는 “腎病者, 愈在甲乙, 甲乙不愈, 甚於戊己, 戊己不死, 持於庚辛, 起於壬癸”, 시간으로는 “腎病者, 夜半慧, 四季甚, 下晡靜.”이라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시간·계절에 따른 五臟의 旺相休囚死

病	愈	不愈甚於	不死持於	起於	慧	甚	靜
肝	夏	秋	冬	春	平旦	下晡	夜半
	丙丁	庚辛	壬癸	甲乙			
心	長夏	冬	春	夏	日中	夜半	平旦
	戊己	壬癸	甲乙	丙丁			
脾	秋	春	夏	長夏	日昃	日出	下晡
	庚辛	甲乙	丙丁	戊己			
肺	冬	夏	長夏	秋	下晡	日中	夜半
	壬癸	丙丁	戊己	庚辛			
腎	春	長夏	秋	冬	夜半	四季	下晡
	甲乙	戊己	庚辛	壬癸			

따라서 위에서 말한 臟腑의 干支配屬<sup>18)</sup>에 근거하여 『素問·臟氣法時論』의 내용을 살펴보면 五臟의 病은 休하게 되는 때 낫고, 休하는 五行의 季節에 낫지 않으면 死하는 季節에 심해지고, 死하는 季節에 죽지 않으면 相하는 季節에는 유지되다가 旺한 季節이 오면 병상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 2. 四時에 따른 醫家들의 處方運用

辨證에서는 五臟六腑의 虛實 判別이 우선적이고 기본이 된다. 『素問·至眞要大論』에서 “病機를 잘 살펴 병변과정에서 五臟六腑의 病機가 어디에 귀속되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것은 그 원인을 살피고 증상이 없는 것도 그 원인을 찾고 實證에는 그 邪氣의 왕성한 기리를 살피고, 虛證에는 正氣의 부족한 기리를 찾는다. 반드시 먼저 五臟의 順승편쇠를 살핀 다음에 血氣를 소통시켜 氣血이 조달되어 화평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sup>19)</sup>”라고 하였다.

이때 간과하기 쉬운 것이 季節에 따른 인체 生理의 변화이다.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변

17) 李慶雨 譯,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2, 서울, 여강출판사, 2000, pp. 138-148.

18) 張介賓은 『類經圖翼·經脈』에서 十二經納音歌라고 하여 “甲膽乙肝丙小腸 丁心戊胃己脾鄉 庚屬大腸辛屬肺 壬屬膀胱癸腎臟 三焦陽府須歸丙 包絡從陰丁火旁 陽干宜納陽之腑 臟配陰干理自當<sup>1)</sup>”으로 十二經에 天干을 배속시켰다. 이에 따라 각 경맥에 天干을 붙이고 五俞穴의 五行配屬에 맞추어 地支를 넣어 六十甲子를 配屬시켰다.

19) 楊力, 中醫運氣學, 서울, 법민문화사, 2000, p. 41.

화가 일어날 수 있으나 누구에게나 여름은 겨울보다 더우므로 겨울보다는 여름에 心火가 熾盛하고, 가을은 長夏보다 건조하게 되므로 脾濕이 더 심해진다. 따라서 치료에 있어 계절적인 고려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內經』에서는 ‘人力으로 천지의 기화를 대체해서는 안 되고, 四時의 運行을 어겨서도 안 된다(「五常政大論」)와 ‘그 운세에 화합하고 변화에 조화해야 한다(「六元正紀大論」)’는 치료총칙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素問·至眞要大論』에서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은 반드시 六氣의 相異한 작용에 밝아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치료와 용약은 天時와 六氣의 변화에 밝아야 한다<sup>20)</sup> 고 하여 이를 따르라고 하였다.

藥物治療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은 寒熱溫涼이다. 『素問·六元正紀大論』에서도 “치료원칙은 반드시 四時기후의 寒·熱·溫·涼을 따라야 한다. 만약 四時의 기의를 범하여 생긴 병이라면 相勝하는 약물을 써서 치료한다<sup>21)</sup>”고 하였고, 『素問·五常政大論』에서 “病情의 寒熱과 盛衰에 근거하여 조치해야 한다.”고 하여 寒熱盛衰의 正황에 의거하여 分별·조치하라고 하였다<sup>22)</sup>.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歷代 醫家들은 많은 處方에서 季節에 따른 加減法을 사용·기록하였으나 그 수많은 處方을 모두 살피기는 어려움이 있어, 臨床에서 常用하는 대표적 處方集인 중국의 『醫方集解』와 우리나라의 『方藥合編』을 위주로 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四時에 따른 加減을 중시한 李東垣의 補中益氣湯 등 處方에 四時加減法을 추가하였고, 『脾胃論』에서는 따로 隨時加減用藥法을 서술하였다.

#### 1) 四時에 따른 용약원칙

##### (1) 『石室秘錄』<sup>23)</sup>

『石室秘錄』에 나타난 季節別 藥物治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 楊力, 中醫運氣學, 서울, 법인문화사, 2000, p. 42.

21) 楊力, 中醫運氣學, 서울, 법인문화사, 2000, p. 42.

22) 楊力, 中醫運氣學, 서울, 법인문화사, 2000, p. 42.

23) 國譯 石室秘錄, 裴旻星譯, 서울, 書苑堂, 2000, pp. 319-321.

#### ① 春夏治法

봄에는 理氣를 위주로 하고 여름에는 健脾를 위주로 한다. 春夏治란 봄과 여름철에 발생하는 氣를 따라 施治하는 法을 말하는 것이니, 봄철에는 疎泄해야 하고 여름철에는 清涼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疎泄 중에도 理氣의 약물을, 清涼에도 健脾藥을 겸비해야 한다.

##### 【春用方】

白芍 三錢, 當歸 人蔘 黃芪 柴胡 甘草 各一錢, 陳皮 神麩 各五分.

이 처방은 蔘芪로 理氣하고, 柴胡 白芍藥 當歸로 養肝하여 木氣를 疎泄시켜 肝이 脾土를 克하지 못하게 하여 자연히 補養이 되게 한다.

##### 【夏用方】

白朮 五錢, 麥門冬 茯苓 各三錢, 玄蔘 二錢, 五味子 甘草 各一錢, 香薷 八分, 陳皮 五分, 神麩 三分.

健脾하는 가운데 潤肺하고 祛暑한다.

#### ② 秋冬治法

가을에는 潤肺를 위주로 하고, 겨울에는 補腎을 위주로 한다. 秋冬治法이란 가을철의 肅과 겨울철의 嚴에 순응하는 治法을 말한다. 그러나 너무 과하게 되지 않도록 화평한 약으로 조절해야 한다.

##### 【秋用方】

麥門冬 百合 各五錢, 五味子 人蔘 甘草 款冬花 天花粉 蘇子 一錢.

이 처방의 묘는 不寒不斂하고 不熱不散한데 있으니, 肺金이 건조해지지 않고 滋潤해지므로 秋氣를 건넌다.

##### 【冬用方】

白朮 熟地黃 各五錢, 茯苓 薏苡仁 各三錢, 山茱萸 二錢, 酸棗仁 枸杞子 菟絲子 各一錢, 肉桂 三分.

이 처방은 腎水를 많이 補하고 腎火를 적게

補하여 水가 不寒하게 하고 火가 沸騰하지 않도록 한다.

(2) 『脾胃論』에서의 隨時加減用藥法

李東垣은 『脾胃論·隨時加減用藥法』에서 四時에 따른 用藥의 變化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寒月陰氣 大助陰邪於外 於正藥內 加 吳茱萸 大熱大辛苦之味 以瀉陰寒之氣. 暑月陽盛則 於正藥中 加 青皮 陳皮 益智 黃蘗 散寒氣 泄陰火之上逆 或以消痞丸 合 滋腎丸.”이라 하여 冬月은 寒氣가 盛하고 夏月은 熱氣가 盛한 차이를 고려하여 正藥中에 加하여 쓸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如天寒 少加 乾薑 或中桂”, “如冬月不加黃連 少入丁香 藿香葉”, “如冬天 加 益智仁 草豆久仁”이라 하여 겨울의 추운 날씨에 찬 약을 쓰는 것을警戒하고 따뜻한 약을 加하여 쓸 것을 언급하였으며, “如夏月少用 更加黃連”이라 하여 더운 여름에는 寒한 黃連을 少量 넣어 여름의 熱氣를 식히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濁氣在陽 亂於胸中 則膈滿閉塞 大便不通. 夏月宜少加酒洗黃蘗末 苦寒之味. 冬月宜加吳茱萸 大辛苦熱之藥. 以從權 乃隨時用氣 以泄濁氣之不降也. 借用大寒之氣 於甘味中 故曰甘寒瀉熱火也. 亦須用發散寒氣 辛溫之劑多 黃蘗少也.”라고 하여 濁氣在陽한 것의 夏月과 冬月の 治法을 구분하였다. 즉, 夏月에는 熾盛한 熱氣로 인하여 濁氣가 腹部에서 胸部로 올라가니 苦寒한 黃蘗을 써야 하나 黃蘗은 苦寒하여 胸部까지 올라가지 못하므로 少加酒洗하여 사용하고, 冬月에는 苦寒한 약물을 쓰지 못하므로 苦熱한 吳茱萸로 위에 있는 濁氣를 끌어내린다.

(3) 『病機氣宜保命集』 愈風湯의 四時에 따른 加味

『病機氣宜保命集』 愈風湯에서는 常服하는 藥은 四時의 變化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봄에는 加 半夏 二兩(모두 四兩), 柴胡 二兩(모두 四兩), 人蔘 二兩(모두 四兩)하니 少陽의 氣를 맞이해서 빼앗음을 이른다. 여름에는 加 石膏 二兩(모두 六兩), 黃芩 二兩(모두 五兩), 知母 二

兩(모두 四兩)하니 陽明의 氣를 맞이해서 빼앗음을 이른다. 季夏에는 加 防己 二兩(모두 四兩), 白朮 二兩, 茯苓 二兩(모두 五兩)하니 脾土의 濕을 勝함을 이른다. 가을에는 厚朴 二兩(모두 四兩), 藿香 二兩, 桂 一兩(모두 二兩)하니 太陰의 氣를 맞이해서 빼앗음을 이른다. 겨울에는 附子 一兩, 桂 一兩(모두 二兩), 當歸 二兩(모두 四兩)하니 少陰의 氣를 勝함을 이른다. 봄이 오면 겨울이 가니 四時가 이와 같다. 비록 四時의 加減에 立法하더라도 다시 病을 대할 때에는 마땅히 病의 虛實寒熱과 土地의 마땅함과 邪氣의 多少를 살펴야 한다<sup>24)</sup>”고 하였다.

2) 『方藥合編』의 四物湯의 四時에 따른 加減

(1) 春에는 川芎을, 夏에는 白芍藥을, 秋에는 地黃을, 冬에는 當歸를 倍加한다<sup>25)</sup>.

川芎은 辛溫하고 肝膽心包로 入하는 藥物로 上下를 通하여 血中之氣를 行하게 하니 活血行氣한다. 봄에는 肺氣가 약하여 推動力이 부족하므로 血中氣藥인 川芎을 사용한다. 또한 날씨가 아직 쌀쌀하므로 肝에 熱을 더하여 活血作用을 더욱 강하게 한다.

芍藥은 酸苦微寒하고 入脾肝하는 藥物로 補血·緩急止痛·鎮痙·柔肝止痛·肝脾不和나 肝胃不和 혹은 肝氣鬱結에 의한 腹痛의 완화 등의 藥理作用이 있다. 여름에 火의 강한 發散을 약간 식히면서 收斂시켜 肝으로 끌어들이는 작용을 한다.

熟地黃은 甘微溫의 藥物로 滋陰·補血·強壯·血糖降下·利尿를 위주하며 慢性的 陰虛를 보강한다. 肝心腎에 入하여 滋血한다. 가을에는 乾燥하므로 滋陰시키고 血을 돕고 肝으로 들어가 가을에 弱해진 肝을 돕는다.

當歸는 辛溫하고, 心肝脾에 入하여 生血한다. 補血·行血·潤腸調經한다. 겨울에는 水가 旺盛하나 추운 날씨에 水가 얼음이 되어 오히려 건조하므로 當歸로 津액을 도우며 덥히고 行血을 돕는다.

24) 대전대학교 제12기 졸업준비위원회, 病機氣宜保命集, 서울, 목과도, 2000, p. 116.

25) 申載鏞, 方藥合編解說, 서울, 成輔社, 1988, p. 62, 68.

(2) 春에는 防風을, 夏에는 黃芩을, 秋에는 天門冬을, 冬에는 桂枝를 加한다<sup>26)</sup>.

防風은 風濕을 치료한다. 매운맛으로 상승하고 단맛으로 土속으로 돌아와서 잘 발산한다<sup>27)</sup>. 봄에 치성한 風邪를 치료하고 상승과 발산을 돕는다.

羅天益은 “肺는 氣를 주관하며, 熱은 氣를 손상한다. 黃芩은 火를 배설하여 氣를 복돋고 肺를 이롭게 한다<sup>28)</sup>”고 하였다. 즉, 黃芩은 肺熱을 배설함으로써 肺를 돕고 心胃의 열도 내린다.

天門冬은 性이 降하고 氣薄味厚한데 甘은 元氣를 助하고 苦는 滯血을 洩하며 寒하되 能히 補하여 上으로 水源을 益하고 下로 腎을 通하여 肺熱을 降하고 化痰하고 止嗽하고 生津하는 요약이 된다<sup>29)</sup>. 天門冬은 肺에 入하고 腎에 入하여 潤燥하고 消痰을 兼하므로 가을의 燥를 다스리기 위하여 加한다.

桂枝는 ‘陰속의 陽’을 펴뜨린다<sup>30)</sup>. 性은 溫無毒하고 味는 辛甘하며, 肺膀胱의 二經에 들어가며, 氣味가 모두 薄하고 性이 升하여 陽에 屬한다. 表를 實하게 하고 邪를 祛하여 過汗傷表의 患이 없다<sup>31)</sup>.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면서 辛味로 발산을 시킨다.

### 3) 『醫方集解』處方中 四時에 따른 加味例

#### (1) 黑地黃丸<sup>32)</sup>

脾와 腎이 모두 傷한 證狀에 使用한다. 處方中에 乾薑을 봄과 겨울에는 一兩을 쓰고 가을에는 七錢, 여름에는 五錢을 쓰라고 하였다. 王好古는 “乾薑은 心脾 二經의 氣分藥이므로 心氣不足을 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봄과 겨울에는 용량을 늘리고 心實한 여름에는 용량을 줄였다.

26) 申載鏞, 方藥合編解說, 서울, 成輔社, 1988, p. 62.

27) 추수, 本經疏證,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 73.

28) 추수, 本經疏證,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 277.

29)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p. 116.

30) 추수, 本經疏證,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 133.

31)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p. 216.

32) 汪昂, 國譯醫方集解, 서울, 大成文化社, 1984, p. 54. “治脾腎不足, 房室虛損, 形瘦無力, 面色青黃(此脾腎兩傷之證). 亦治血虛久痔(氣不攝血則妄行, 濕熱下流則成痔. 潔古曰, 此治血虛久痔之聖藥). 蒼朮(油浸) 熟地黃(一斤) 五味子(半斤) 干姜(春冬一兩, 秋七錢, 夏五錢), 棗肉丸.”

#### (2) 補天丸<sup>33)</sup>

氣血이 쇠약한 虛勞의 證을 치료한다. 足少陰腎의 약이다. 겨울은 腎水가 강해지는 계절이나 날씨가 춥고 수렴이 너무 많이 되므로 乾薑을 加한다. 乾薑은 “氣薄味厚하고 半浮半沈하고 陽中の 陰에 속한다. 性이 升하기도 하고, 降하기도 하여 祛寒, 散結, 回陽通脈의 要藥이 된다”고 하였고, “이 藥의 升散力은 生薑보다 적되 溫性은 生薑에 비하여 甚하다<sup>34)</sup>”고 하였으니 氣血이 衰弱한 者에게 심하게 發散하지 않으면서 따뜻하게 한다. 여름에는 心火가 强하고 腎水가 弱해지므로 肺氣를 收斂하며 補腎하는 五味子를 加한다.

#### (3) 升麻葛根湯<sup>35)</sup>

이는 足陽明의 藥이다. 陽明인 胃는 多氣多血한다. 寒邪에 傷하면 血과 氣가 壅滯된다. 陽明經 頭痛이 있는데 熱이 不退하면 봄에는 柴胡 黃芩 防風을 加하니 봄은 少陽氣가 時을 司하므로 少陽經의 藥을 加한 것이고, 여름에는 火熱이 熾盛하므로 黃芩 石膏를 加하여 清熱한다.

#### (4) 柴葛解肌湯<sup>36)</sup>

이는 足太陽과 足陽明의 藥이다. 寒邪가 經에 침입하여 太陽少陽陽明經의 邪를 解散하는 藥을 使用한다. 여기에 겨울에는 表가 鬱滯되어 發散이 어려우므로 發散을 위하여 麻黃을 加하고,

33) 汪昂, 國譯醫方集解, 서울, 大成文化社, 1984, p. 59. “治氣血衰弱, 六脈細數, 虛勞之證. 紫河車(一具) 黃柏(酒炒) 龜板(酥炙, 三兩) 杜仲(姜汁炒) 牛膝(酒浸, 二兩) 陳皮(一兩) 冬加干姜五錢, 夏加炒五味子一兩. 酒糊丸(此即前方加陳皮而除肺家藥).”

34)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p. 576.

35) 汪昂, 國譯醫方集解, 서울, 大成文化社, 1984, p. 130.

“治陽明傷寒中風, 頭疼身痛, 發熱惡寒, 無汗口渴, 目痛鼻干, 不得臥, 及陽明發斑, 欲出不出, 寒暄不時, 人多疾疫. 升麻(三錢) 葛根 芍藥(二錢) 甘草(一錢. 炙.) 加姜煎. … 熱不退, 春加柴胡 黃芩 防風(少陽司令, 柴芩少陽經藥), 夏加黃芩 石膏(清降火熱).”

36) 汪昂, 國譯醫方集解, 서울, 大成文化社, 1984, p. 132.

“治太陽陽明合病, 頭目眼眶痛, 鼻干不眠, 惡寒無汗, 脈微洪. 柴胡 葛根 羌活 白芷 黃芩 芍藥 桔梗 甘草. 加姜 棗 石膏(一錢煎服). 無汗惡寒甚者, 去黃芩, 冬月加麻黃, 春月少加, 夏月加蘇葉.”

봄에는 發散이 시작되므로 조금만 加하며, 여름에는 毛孔이 열려 있으므로 發散은 시키되 發汗은 덜되며 心胸의 鬱熱을 開하여 治하는 蘇葉을 사용한다.

(5) 補中益氣湯<sup>37)</sup>

陽을 升하여 中을 補한다. 이는 足太陽과 足陽明의 藥이다. 咳嗽이 있는 경우에 봄에는 實해진 木이 金을 勝侮하여 金이 올체된 것을 水氣를 稟하고 肺氣를 通하는 款冬花와 降逆破結泄散風寒·疏通經하는 旋覆花를 加하여 쓰고, 여름에는 火로 인하여 水氣가 말라 津液不足이 되고 火克金하여 肺가 弱해져 기침을 하므로 補肺하며 津液을 돕고 收斂을 시키기 위하여 五味子와 潤肺清心하는 麥門冬을 加한다. 가을에는 收斂되어 表皮가 울겉되어 기침하므로 麻黃과 肺熱을 清하는 黃芩으로 表의 鬱을 發散시키고 강한 金氣가 火를 勝侮하여 鬱熱이 생긴 것을 해소한다. 겨울에는 더욱 收斂이 강하게 일어나므로 麻黃의 마디를 除去하지 않고 사용하여 發散力을 더 높인다.

(6) 越鞠丸<sup>38)</sup>

六鬱을 治한다. 이는 手足太陰과 手少陽의 藥이다. 氣가 通暢하면 鬱이 舒하는 것이다. 봄에는 防風을 加하고 여름에는 苦蔘을 加하며 겨울에는 吳茱萸를 加하기도 하니 經에 云한 升과 降과 浮와 沈하는 것은 四時를 順하고 寒과 熱과 溫과 涼하는 것은 四時에 逆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7) 汪昂, 國譯醫方集解, 서울, 大成文化社, 1984, pp. 233-236.

“治煩勞內傷, 身熱心煩, 頭痛惡寒, 懶言惡食, 脈洪大而虛, 或喘或渴, 或陽虛自汗, 或氣虛不能攝血, 或癰癩脾虛, 久不能愈, 一切清陽下陷, 中氣不足之證. 黃芪(蜜炙, 錢半) 人參 甘草(炙, 一錢) 白朮(土炒) 陳皮(留白) 當歸(五分) 升麻(三分) 柴胡(三分). 姜(三片), 棗(二枚煎). … 咳嗽, 春加旋復 款冬, 夏加麥冬 五味, 秋加麻黃 黃芩, 冬加不去根節麻黃, 天寒加干姜.”

38) 汪昂, 國譯醫方集解, 서울, 大成文化社, 1984, pp. 245-246.

“統治六郁, 胸膈痞悶, 吞酸嘔吐, 飲食不消. 香附(醋炒) 蒼朮(泔浸, 炒) 撫芎 神曲(炒) 梔子(炒黑, 等分) 曲糊爲丸. … 又或春加防風, 夏加苦蔘, 冬加吳茱萸, 經所謂升降浮沉則順之, 寒熱溫涼則逆之也.”

봄에는 방풍을 加한다. 방풍은 一切 風濕病을 治하므로 發表疏散의 藥이 되고 風藥 중에 潤劑가 된다<sup>39)</sup>.

여름에 苦蔘을 加한다. 徐大椿은 “苦蔘은 味로서 治를 한다. 苦는 心에 入하고 寒은 火를 除하므로 苦蔘은 오로지 心經의 火를 治하는데 黃連과 더불어 功用이 相近하다<sup>40)</sup>”라고 하였으니 여름의 心火를 다스리기 위함이다.

겨울에 加한 吳茱萸에 대하여 “辛熱하여 能히 産하고 能히 溫하며 苦熱은 燥하고 能히 堅하므로 그 所治의 症은 모두 그 散寒, 溫中, 燥濕, 解鬱의 功을 取할 따름이 아니다<sup>41)</sup>”, “辛溫으로 脾胃를 煖하여 寒邪를 散하면 中이 스스로 溫하고 氣가 스스로 下하여 諸症이 모두 제거된다.”라고 하였으니, 겨울의 寒邪를 散하고 溫中한다.

(7) 達生散<sup>42)</sup>

이것은 足太陰脾, 足厥陰肝의 藥이다. 출산하기 쉽게 한다. 達生散은 妊娠 八九個月에 쓰는 약이다. 妊娠 九個月이 되면 腎이 생기고 石氣가 들어와서 뼈가 굳어지고 骨髓가 찬다<sup>43)</sup>. 봄에는 肝이 發散하여야 하는데 胎兒의 기운에 놀리어 鬱滯되므로 和血通肝하여 補血潤燥·行氣搜風하는 川芎을 加하고,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 血에 熱이 심하여 血滯가 일어 날 수 있으므로 黃芩을 加하여 熱을 식히고, 겨울에는 本方과 그대로 사용한다.

이상의 여러 처방들의 四時에 따른 운용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39)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p. 269.

40)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p. 216.

41)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p. 608.

42) 汪昂, 國譯醫方集解, 서울, 大成文化社, 1984, p. 613.

“婦人妊娠八九月, 服數十劑, 易生有力. 當歸(酒洗) 芍藥(酒炒) 人參 白朮(土炒) 陳皮 紫蘇(一錢) 甘草(炙, 二錢) 大腹皮(三錢). 入青蔥五葉, 黃楊腦子七個, 煎黃(楊木主產難). … 或春加川芎, 夏加黃芩, 冬如本方.”

43) 宋点植, 醫學輯要, 대전, 주민출판사, 2006, p. 60.

【표 2】 四時에 따른 處方 加味 例

處方名	春	夏	秋	冬
四物湯	川芎 防風	白朮藥 黃芩	熟地黃 天門冬	當歸 桂枝
黑地黃丸	乾薑一 兩	乾薑五 錢	乾薑七 錢	乾薑一 兩
補天丸		五味子		乾薑
升麻葛根 湯	柴胡 黃芩 防風	黃芩 石膏		
柴葛解肌 湯	麻黃少 量	蘇葉		麻黃
補中益氣 湯	款冬花 旋覆花	五味子 麥門冬	麻黃 黃芩	不除麻 黃
越鞠丸	防風	苦參		吳茱萸
達生散	川芎	黃芩		
愈風湯	半夏 柴胡 人參	石膏 黃芩 知母	厚朴 藿香 桂	附子 桂 當歸

### III. 결 론

季節변화는 寒熱溫涼의 氣候차이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인체의 생리기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즉,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더운 것처럼 臟腑도 계절의 변화에 따라 盛衰가 달리 나타난다. 봄에는 肝이 盛하고 脾가 衰하고, 長夏에는 脾가 盛하고 腎이 衰하며, 여름에는 心이 盛하고 肺가 衰하고, 가을에는 肺가 盛하고 肝이 衰하며, 겨울에는 腎이 盛하고 心이 衰한다.

治療를 할 때에는 病症에 따른 臟腑辨證뿐 아니라 季節에 따른 臟腑盛衰·寒熱溫涼·升降浮沈·風寒暑濕燥火 등을 고려해야 하고, 계절에 따라 쇠약해져 있는 臟腑를 瀉하여 臟腑의 精氣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계절에 따라 항진되어 있는 臟腑를 補하여 臟腑의 機能이 過亢進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石室秘錄』, 『脾胃論』, 『病機氣宜保命集』, 『方藥合編』, 『醫方集解』 등에 나타난 四時 藥物加減을 살펴보면, 봄에는 주로 少陽을 돕고 上升과 發散을 시키되 너무 強하지 않은 약이 쓰였고 여름에는 熱氣를 식히고 가을에는 津液을 보충하며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며 發散을 돕는 약이 주

로 사용되었다. 즉, 약물 加減시에 四時의 寒熱溫涼과 收斂發散 등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 IV. 참고문헌

1. 裴秉哲 譯, 今釋黃帝內經素問, 서울, 成輔社, 1999.
2. 崔根祚, 시간에 따른 인체의 생리변화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3. 楊力, 中醫運氣學, 서울, 법인문화사, 2000.
4. 李梴,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3.
5. 勸依經, 오운육기학 해설, 서울, 법인문화사, 1996.
6.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一中社, 1992.
7. 殷南根, 오행의 새로운 이해, 서울, 법인문화사, 2000.
8. 전국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편찬위원회, 類編黃帝內經, 대전, 주민출판사, 2005.
9. 李景榮 等,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10. 李慶雨 譯,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2, 서울, 여강출판사, 2000.
11. 國譯 石室秘錄, 裴昨星譯, 서울, 書苑堂, 2000
12. 대전대학교 제12기 졸업준비위원회, 病機氣宜保命集, 서울, 목과토, 2000.
13. 申載鏞, 方藥合編解說, 서울, 成輔社, 1988.
14. 추수, 本經疏證, 서울, 대성의학사, 2001.
15.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6. 汪昂, 國譯醫方集解, 서울, 大成文化社, 1984.
17. 宋点植, 醫學輯要, 대전, 주민출판사, 2006.